

자율형 사립고 ‘납입금’에 속지 않았으면

.....

자사고 ‘납입금’이 얼마라고 하던가요?

학교 자율 결정인데, 교육청이나 학교관계자가 얼마라고 하던가요?

설마 그게 전부라고 믿는 건 아니겠죠?

‘납입금’만 내는 게 아닙니다. 학비는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 2009년 6월 9일 현재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진행중

- 서울 33개 사립고, 자사고 신청
- 전국적으로 자사고 지정 절차 진행 중
- 7월 중순까지 전국 30개 고교 지정 예정

□ 재단이 자사고 하는데 필요한 돈은?

- 재단전입금 관련 법적 기준은 하나.
 - 서울과 광역시 지역: 학생이 낸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 납부
 - 도 지역: 학생이 낸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이상 납부
- 예시(서울)
 - 학생 1천명 × 수업료 및 입학금 400만원 = 총액 40억원
 - 재단이 내야 할 돈 = 40억원 × 5% = 2억원 이상
- 학생 납입금과 재단전입금의 연동 구조
 - 재단의 지불능력이 좋으면 납입금을 많이 책정할 수 있음.
 - 하지만 **지불능력이 적다고 학비를 적게 책정하는 건 아님. 납입금 ≠ 학비.**

□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학비

- 수업료 및 입학금 + 학교운영지원비 +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등)
- 자사고의 납입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만 해당

□ 자사고 제도 입안 과정에서 ‘납입금’의 개념 변화

- 2008년 10월 1일 자사고 추진방향 토론회(한국교육학회 주최)
 - 자사고 제도 입안을 위한 첫 번째 움직임.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하나,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위탁 연구 결과이기도 함.
 - “등록금을 총액교육비 일괄 납부제 형식으로 전환 ... 등록금과 수익자부담경비를 분리하여 납부할 경우, 등록금 부족분을 수익자부담경비로 전가시킬 우려가 ... 자율형 사립고는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급식비, 특기적성교육비 등)와 일반적인 등록금을 합산하여 총액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43쪽)
 - 연구진은 수업료 및 입학금(등록금)과 기타 납부금의 총액 납부를 제안.
- 2008년 12월 30일 자사고 근거 시행령 입법예고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2조 제1호 “납입금”이라 함은 학교가 1회계연도내에 학생으로부터 납입받은 수업료, 입학금의 총액.
 - 연구진의 제안과 달리, ‘**납입금**’을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한정하여 입법예고**
- 2009년 4월 10일 자사고 근거 시행령 제정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과 제2항.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 등으로 명시
 - ‘**납입금**’을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한정하여 확정**

※ 처음엔 ‘모든 학비’로 이야기 나왔으나, ‘수업료 및 입학금’만으로 한정.

□ 앞으로 어떤 일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가정하면,

- 2006년 자립형 사립고 결산자료 중 일부(교과부 내부자료, 2007)

| | 학생수 | 교비회계 결산 중 | | |
|-------|-------|-----------|----------|----------|
| | | 등록금 수입 | 수익자부담경비 | 소계 |
| 민족사관고 | 428명 | 15억 6천만원 | 32억 8천만원 | 48억 4천만원 |
| 상산고 | 1050명 | 43억 1천만원 | 37억 9천만원 | 81억 원 |
| 현대청운고 | 500명 | 14억 6천만원 | 20억 9천만원 | 35억 6천만원 |

- 위 표와 자사고 규정에 의거하여, 재단이 내야 할 최소 비용을 계산

| | 모든 학비 기준 | 등록금 기준(현행법령) | 차액 | 비고 |
|-------|----------|--------------|----------|--------|
| 민족사관고 | 1억 4500만 | 4600만 | 9800만 | 도지역 3% |
| 상산고 | 2억 4300만 | 1억 2900만 | 1억 1300만 | 도지역 3% |
| 현대청운고 | 1억 7800만 | 7300만 | 1억 400만 | 광역시 5% |

※ **재단은 좋겠네.** 기준이 적어서 돈 조금만 내도 되고, 부족한 건 수익자부담경비로 전가하면 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속아야겠네.** 학비 많이 내지만 ‘납입금’은 적다고 하니까. 2005년 민사고 납입금이 281만원인데, 수익자부담경비가 1754만원이래.